

양약고구(良藥苦口) 충언역이(忠言逆而)

'좋은 약은 입에 써도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려도 행하는 데 이롭다.'

'양약고구(良藥苦口), 충언역이(忠言逆而)' 이 말은 공자가어(孔子家語) 육본편(六本篇)과 설원의 정간편(正諫篇)에 나오고 같은 내용의 말이 사기(史記) 유후세가(留侯世家)에도 있는 말이다.

내용을 알아보면 이렇다. '좋은 약은 입에 써도 병에 이롭고 (良藥苦口而利於病),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려도 행하는 데 이롭다(忠言逆於耳而利於行)' 는 말이다. 탕(湯)임금과 무왕(武王)은 곧은 말하는 사람으로 인해 일어나고, 곽(桀)과 주(紂)는 순종하는 사람들로 망했다. 임금으로 말리는 신하가 없고, 아비로 말리는 아들이 없고, 형으로 말리는 아우가 없고, 선비로 말리는 친구가 없으면 과오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했다.

진시황(BC 259~210)은 열국을 쳐서 천하를 통일하였으며 흉노를 토벌하여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완성했다. 또한 포학(暴虐)을 지어 호화와 향락을 일삼았다. 또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약, 농사책 등은 제외)을 모아서 이를 불사르고 선비 수백 명을 구덩이에 생매장하는 '분서갱유'를 단행하여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이때 초(楚) 나라 항우(項羽 BC 230~202)는 진(秦)나라를 쳐서 초왕이 되기는 했으나 어깨를 겨루던 한(漢)의 유방(劉邦)에게 핵(核)에서 포위되어 마침내 오강(烏江)에서 자살하고



이희용 포천예향 회장

말았다. 항우는 힘이 장사지만 재력과 도량이 부족하고 인재를 얻지 못하는데 비하여 유방은 장량, 한신 같은 어진 신하와 이름난 장수를 써서 장안(長安)에 도읍하고 한(漢) 나라를 세웠다. 필사의 경쟁에서 승세를 얻은 유방은 항우보다 앞서 군사를 거느린 순간 그만 취하고 말았다. 유방은 그대로 놀러 앉아 시황제를 처서 천하를 통일하였으며 흉노를 토벌하여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완성했다. 또한 포학(暴虐)을 지어 호화와 향락을 일삼았다. 또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약, 농사책 등은 제외)을 모아서 이를 불사르고 선비 수백 명을 구덩이에 생매장하는 '분서갱유'를 단행하여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그러나 유방은 이를 듣지 않았다. 변패는 답답하고 속이 상했지만 난처하여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때 슬기로운 장수로 이름을 떨친 장량이 한걸음 나아가, "진 나라가 무도한 학정으로 천하의 원성을 샀기 때문에 당신과 같은 한낱 서민이 오늘날 궁중까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사명과 임무는 온통 원성으로 들끓고 있는 천하를 안정시키고 시달림을 받은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진 나라에 첫발을 들여놓자마자 보물과 미녀 따위에 팔려 포박된 진사환과 같이 향락에 빠져 버린다면 그야말로 공든 탑이 무너지고 역사에 악명밖에 더 남을 것이 있겠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써도 병에 들을 것이며, 충성된 바론 말은 귀에 거슬려도 행하면 이로운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제발 변패의 충언을 따라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유방은 깨달은 바 있어 곧 궁을 떠나 다른 곳에 자리 잡고 전세를 가다듬었고 머지않아 항우의 대군이 뒤쫓아 진격해 왔으나 홍문(鴻門)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부하의 충언을 진실로 받아들인 유방은 그 후 천하를 통일하여 강대한 나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포천시도 한나라 유방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에 권력의 한가운데서 무모한 고집과 욕심으로 여론을 거슬리고 수행하고 있던 중요한 자리를 버리고 더 큰 것을 차지하려 나선 사람에게 우리의 민심은 낙선이라는 본보기를 보여주었고 거기에 광우병의 폭풍이 몰아쳐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움직여 묶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오류를 범한 예를 지켜보았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을 돌아보고 옳은 말을 해주는 주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오랜 야인의 생활을 접고 새로 출범한 시정의 책임자는 이제 유방이 변패의 말을 듣듯이 눈을 크게 뜨고 바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자리까지 위협받으면서도 사심 없이 충심으로 전해주는 의견에 대해 귀를 크게 열고 상세하게 들여야 한다.

민심은 항상 움직이고 있는 파도와 같다. 언제라도 그 이치를 거슬러면 거대한 물결기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만다. 시민이 할말이 있을 때 전달할 수 있는 언론을 열어 놓아 그 속에 녹아있는 진실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자. 만약 마음으로 진실하게 전하는 말을 무시하고 떠나사냥으로 그를 죽이려 한다면 민심의 바다는 반드시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양약고구(良藥苦口), 충언역이(忠言逆而)' 라는 고사를 탄산지식으로 삼아 시민의 쓴 소리를 많이 듣고 존중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두물머리 애벌레 생태학교 현장학습

삼복더위와 씨름하던 여름도 저만치 물러가고 어느새 입추라는 절기를 맞이했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가을을 재촉하고 풀벌레 소리들의 합창은 오케스트라를 무색케 할 정도로 너무 너무 아름답게 들려오는데 8월21일에 있을 영재학급 현장 학습을 떠올리게 된다.



조은혜 학생영재기타단 부단장 6학년

남양주 두물머리 애벌레 생태학교란 어떤 곳이며 어떻게 생겼을까? 두물머리라고 누가 이름을 지었을까? 그곳에는 어떤 종류의 애벌레들이 모여 있을까? 지구촌 여러 종류의 수인종류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든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얽혀락 뒤척임 잠을 설치며 지난 봄 태안 봉사 때에 뿌듯했던 일을 생각해 보았다.

설레이 속에서 출발했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1박 2일의 시간들은 바다의 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 그래도 또다시 기대가 된다.

또한 여름방학 과제로 현장체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캠프에 관한 기사도 써야 했기에 마음이 조금은 무겁기도 하고 소심한 성격 탓에 같이 앉기로 한 친구가 안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배낭 안에는 엄마가 새벽에 맡겨주신 예쁜 갑각류와 준비물이 하나 둘씩 채워지고 운전 기사님의 시동 거는 소리와 함께 차량 밖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 수해가 되고 태풍이 지나갔는지 이 여기 저기에 빨간 고추를 널려있는 가을마당과 옥상과 하우스 안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더해준다.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애벌레 학교에 도착해서 수서곤충, 파충류, 나비관찰, 미꾸라지 잡기가 시작되었다.

제일 먼저 누에고치에서 비단 실 뽑기였는데 실이 잘 뽑히지 않도록 누에 고치를 미리 물에 담가 놓았다가 꺼내서 풀어보았다.

물레를 이용해서 뽑았던 것보다는 친구와 함께 손으로 뽑는 것이 더욱 더 재미있고 특이한 것은 실을 풀으면 흰색인데 감으면 누런 빛깔을 띠고 있으며 고치의 실을 다 풀고 난 번데기를 우리가 맛있게 먹는다는 것이다.

전에 먹었던 기억은 번데기가 불쌍하기도 하고 갑자기 소화 안되는 것 같기도 했다.

다음은 내비에 관한 내비관으로 향했다.

내비관이냐 들어가면 수많은 예쁜 나비들이 날개 춤을 추

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보니 나비 한마리 보기가 어려워서 실망했는데 일장 과정의 모든 것들을 배우는 곳이었다.

그 곳에서 몸에 까만 점들이 눈처럼 보이게 하고 냄새나는 풀을 먹고 자신의 몸으로 냄새를 배출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애벌레들의 영특함이 새삼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람도 동물도 미물들도 자신이 살아남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위장과 변신을 하는지 우리 학교 전학생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여러가지 파충류를 보면서 갑판사가 절로 나왔다.

직접 만져볼 수 있고 설명을 들으며 관찰하면서 기록할 수 있으니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평소에 징그러다고 생각했던 뱀, 거북이, 거미 등을 만져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느껴지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허를 날름거리면서 희 희 하는 괴물들의 목을 갈아 조이는 듯한 전설의 고함을 보는 것 같이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었다.

어떤 친구는 노랑색 빛깔을 띠고 있는 뱀을 목에다 걸고 자신을 과시했지만 너무 징그러워서 온몸이 쪼그라드는 듯한 공포에 떨었는데 내게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무서움이 조금은 더는 듯 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순한 느낌이 마음을 평온케 해 주었다. 거북이 또한 등껍질이 아주 딱딱해서 발과 목과 발가락 모두가 딱딱하지는 않을까 의심했는데 이럴수가 있을까...

일찍보다 더 말랑말랑하고 아기피부만큼이나 촉촉하고 부드러웠다.

거미는 털이 아주 많았는데 '타란툴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는 친구들 때문에 첫번 안아보는 것은 실패했지만 두 번 째는 조심스럽게 차분히 인했으므로 안아보는 일에 성공했다.

조금은 날카롭기도 한 것이 순바다에서 팔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데 소름이 돋고 기습이 굉장하려고 숨이 차는 듯 함을 꼭 참았다.

다행이도 독이 없는 거미라 해

서 안심은 했지만 실전에는 약한 내 자신이 드러나고 말았다.

다음 미꾸라지를 잡는 시간이 되어 벽간 기대감에 진흙속으로 미끌어져 들어갔는데 말 그대로 미끌거리서 진흙 밟기도 힘들어 미꾸라지 잡기도 여간 어려웠다. 양 손가락을 벌리고 진흙을 감싸듯이 떠올리는 자세로 몇 번 시도한 끝에 드디어 1마리 잡아 올렸다.

짜릿한 승리감에 아사 소리가 절로 나오고 손가락은 벌써 v자를 만들고 있었다. 징그러웠던 것이 귀엽고 예쁘고 또 만져보아도 속속 빠져나가는 모습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기 싫은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 미꾸라지처럼 속속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벌의 옷을 챙겼지만 그래도 옷 젖는 것이 싫어서 얇은 진흙 속에서는 나뭇잎이 없었다.

처음에는 바가지로 진흙을 떠서 올렸는데 친구들은 손만 넣으면 척척 잡아 올리는데 마냥 부럽기만 했다.

손으로 천천히 물다가 확 잡는 방법을 터득했지만 너무도 늦은 시간이라 못내 아쉬움만 남았다.

배편이 노랑과 등이 검푸른 빛이 감도는 미꾸라지들을 모두가 집에 가지고 가고 싶어했지만 다음 체험 학생들을 위해서 두고 가야 한다는 인솔선생님의 한 말씀에 그대로 따랐다.

좁은 물가에서 발을 담고도 참방참방 물보라도 튀기고 꼬물 꼬물 발가락을 움직여서 진흙 속에서 수고한 발에 피로도 풀었다.

내려오는 길은 자갈길이라서 발바닥 지압도 하고 햇볕에 달구어진 돌에 점질도 하고 재잘거리며 하루가 저물고 차랑에 등을 기대며 체험 현장에서 메탈리프 가위 사슴벌레를 삶아서 스티로폼에 채집 장식한 꼭 살이 있는 듯한 멋진 곤충 표본과 장수 풍뎉이의 조그만 애벌레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들여다보면서 신기하고 또 신기해서 지루한 줄도 모르고 집에 도착했다.

며칠 후 창가에 두었던 작고 귀여운 애벌레가 커다란 굼벵이로 변신해서 병 속을 기어다니고 있는 경이로움에 우리 가족 모두는 놀라움에 감탄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의젓한 풍뎉이로 탈바꿈해서 날개를 달게 된다. 그 때가 되면 자연으로 돌려보내도 되고 인터넷 경매도 가능하다고 했다.

오늘도 부드러운 톱밥 유리병 안에서 커다란 애벌레는 꿈틀거리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쁜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다.

일부 양심 없는 운전자들

아파트 소방도로 제도도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송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내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도로가 개설돼 있지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통행 불편은 물론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주차 공간도 많이 있으나 주·정차 단속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운전자들이 편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방도로는 주·정차 위반 단속 규정조차 없어 주

차차량에 대한 단속도 불가능해 소방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 주차장으로 전락된 셈입니다.



장선옥 주부영예기타단 선동지부장

또한 차량들이 진입했다가 소방도로가 막혀서 돌아갈 곳이 없어 후진할 경우 옆에 주·정차해 놓은 차량들과 충돌의 위험이 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물탱크 차와 고가사다리차들은 폭이 2.5m이어서 폭넓은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진입을 할 수 없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방도로가 유사시를 대비해 만든 도로이니 목적에 맞게 소방도로에는 운전자들이 주차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GOEUN 고객이 만족할수 있는 기술력과 서비스 제공

취급공사

- 한전
- APT
- 빌딩
- 기계소방
- 공장
- 병원
- 호텔
- 전기소방
- 학교·관공서
- 가로등·신호등
- 인테리어
- 상가 및 기타

직원 모집

- ◆ 담당업무 : 내선전기(전공, 조공)
- ◆ 고용형태 : 정규직
- ◆ 모집인원 : 0명
- ◆ 근무환경 : 4대 보험 가입
- ◆ 급여조건 : 회사내규에 따름/면접후 결정
- ◆ 자격조건 : 신입/경력, 고졸이상, 자격취득자 우대

▲ 고은빌딩 전경

교육청소방공사(포천교육청)

▲ 고은직업학교 전경

무정전작업(한전 포천지점)

▲ 고은종합전기 전경

학교선축 전기공사(화성·제암초등학교)

▲ 고은종합전기 전경

가로등 신설공사(파주 교하-조리간 4차선 10.29km)

▲ 고은종합전기 전경

공장 전기·소방공사(꽃샘종합식품)

▲ 고은종합전기 전경

아파트 전기·소방공사(구미시 도량동 주공아파트)

고은종합전기(주) ■ 본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빌딩 1층 ■ 전화 : 031)542-9771~4 / Fax : 031)542-1115